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12일(화요일) 저녁 18시30분,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6명) - 박미현, 박정수, 장혜인, 오유미, 장현수, 김은주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마혜란, 백윤미

상정안건

1. 5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평가
2. 6기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반영할 점
3. 기타 안건(원비인상 등의 포함)

○ 위원장: 지금부터 제5기 4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원장: 잘 지내셨는지요?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간사: 위원장님! 지난 3회 회의기록 승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네. 탑재된 회의록 확인하였습니다. *** 서명처리**

<안건1. 5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평가>

○ 위원장: 오늘은 5기 유치원운영위원회 마지막 정기회의로 먼저 5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평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돌아가시며 자유롭게 발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단, 학부모카페는 활성화가 점점 더 되지 않고 있어 일반학부모들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본 안건들 나누는 것에 그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제가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유치원과 유아들의 생활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위원: 처음에 할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생업과 함께 겸하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시간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 저녁시간대인데,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매번 주변에 부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면 종일반이 운영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유치원 교육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아이들 교육에 힘써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 ○○○위원: 정해진 안건 외에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위원: 직장도 다니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정도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교원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모님들의 입장을 알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반영할 만한 점들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 교원위원: 운영위원회 5기가 되기까지 저도 함께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 교원위원: 중요한 결정 시 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다소 소극적이시구요. 하지만 함께 나누며, 유치원에 의견이 반영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며 나름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원장: 저는 아이들을 키운 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즘 어머니들과는 양육,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님들을 통해 젊은 부모님들의 생각과 생활에 대해 듣게 되고, 반영할 점 등을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건2. 6기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반영할 점, 조언>

- 위원장: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박수)
그러면 이번에는 3월에 구성하게 될 6기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반영할 점, 조언 등을 나눠보겠습니다.
- ○○○위원: 일반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처럼 카페운영은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담임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면 참여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 교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카페를 만들때는 교사들이 들어오면 부모들이 자유발언이 어려울 거다 그러셔서 저희 교사는 참여안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사와 주고받으면 더 활성화될 겁니다. 블로그나 밴드도 있구요.
-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나 반별 게시판을 만들어 의무는 아니지만, 유치원이나 학부모 모두 건의사항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카페는 존폐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통창구에 대해서 다음 6기 운영위원회에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6기에 더 조언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추가 의견 없음.)
그럼 이번에는 마무리하며 기타 안건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3. 기타 안건>

- 위원장: 이번에 4세가 ‘라뜰리에’ 라는 미술체험을 다녀왔는데, 견학 계획 시 꼭 주제와 상관없어도 좋은 기획 전시가 있다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제와 맞춰 진행하다 보니, 좋은 전시가 있어도 전해 드리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원장: 선생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보다 빨리 알고 성숙하다 보니, 화장실 사용에 대해 성교육과 연계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기심,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에 대한 주의도 꼭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원위원: 성교육은 많이 강화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 유아들의 호기심과 장난 지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취학 전인 5세에 대해 더욱 지도 신경써야겠습니다.
- ○○○위원: 남아, 여아 화장실이 한 곳에 있는 것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이 있다 해도 남아 소변기를 오픈이 되어 있어 서로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원위원: 유아들이 조심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위원: 사용 후 물 내리는 것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부모님들 사진이 적게 올라온다는 의견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안 뒤 페이지에 있는 활동사진을 모르셔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안내가 통신문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사진은 너무 여러 장인 거 보다 지금처럼 담임선생님이 선정해서 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 다운받기도 어렵고요. 단, 탑재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놓칠 수가 있으니 탑재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 ○○○위원: 홈페이지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교육안에 있는 사진들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원위원: 이번에 나가는 통신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가해서 원장님께 오더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지요?
요즘 사립유치원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폐원한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어서 주변에 실제 폐원하는 원에 보내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힘들어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폐원을 앞두고 있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교사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신뢰가 깨지게 되더라구요. 지금시기에 다른 곳에 입학하기도 쉽지가 않구요.
-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영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이고 불안하니까.
- ○○○위원: 요즘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잠잠해지고 있지 않나요?...
- 원장: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힘듭니다. 저는 유치원이 유일한 생업입니다. 개인재산으로 유치원을 세웠고, 운영을 하는 설립자이자, 원장입니다. 그런데 3법이 통과되면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법에 의하면 설립자는 뒤로 물러나 아무런 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저로서는 건물과 시설을 내어주고, 그냥 앉아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교사들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처음학교로시스템 가입, 원비 인상상한제 준수, 에듀파인 도입 이 3가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동안 나오던 교사처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지원결정 사항 내용 공유)
처음학교로와 비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도 원아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원비 인상 상한제야 늘 지켜왔고, 에듀파인 이 회계시스템은 물론 나중에는 공문처럼 전자화 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전문행정직원이 2명은 있어야 하고,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에 바로바로 채워줘야 할 자료를 여러 절차를 거쳐 승인 받고, 개인재산 유치원에 대한 어떤 이익도 남길 수가 없는 등 사립유치원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협박각서 쓰듯이 에듀파인 도입의향서까지 쓰라고 하며, 거기에 교사처우지원 중단까지 포함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지치게 합니다. 제가 작년 사립유치원 휴업과 관련해 제가 동참하는 이유는 이런 주변적인 요인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교사들과 그것을 알아주는 부모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유아교육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 교원위원: 교사처우는 교사통장으로 바로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교사처우처럼 복지의 일환이었던 건데, 10월공문과 달리 신학기를 불과 2주정도 앞둔 지금 변경해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급여의 30%에 해당되는 걸 안 준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정책들은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박을 하기 위해 교사들까지 이용한다는 게 정말 속상합니다.

오늘 교사들과 공유하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 원장: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원이 있다면 폐원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폐원도 못하게 하고, 부모들은 알아서 유아 다른 곳에 보내야 하고, 비리라는 프레임을 전체 사립유치원에 씌워 놓고, 어떻게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죄다 처벌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정원감축, 뭐 잘못하면 운영정지, 그럼 운영정지하면 그 기간에 유아들 학습권은요? 대책 없이 다 처벌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쯤은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 그랬군요. 그래도 우리 약수유치원은 교육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믿고 보내시는 거니까, 필요하실 경우,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서명하는 것에 동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맞습니다. 그래서 원비 더 내야 하는 거 알고 보내는 겁니다.

- 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작년 통신문에 진급확인할 때 상한제에 맞춰 교육비인상에 대해 언급해 드렸는데, 2019학년도 원비 상한제 1.4%를 준수하여 7천원 내외 정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외에 보조인력 인건비가 많이 올라 걱정입니다.

- 위원장: 원비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 전체: 네. 동의합니다.

- 원장: 감사합니다. 학부모O·T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원위원: 우리 약수교사들은 더 힘내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니,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로 5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록자 : 조문숙(인)